

# 세계 주요 타이어 메이커의 04년 사업실적 및 05년 전망

## 1. 개황

04년에 세계 타이어메이커들은 원자재 가격양등, 고유가등 마이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을 실현하였다. '05년 이후에도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의욕적인 경기전망 및 사업계획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타이어산업을 지속적인 성장산업으로써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타이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성능화·대형화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타이어메이커들은 이러한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국내외 공장의 생산능력 증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2. 주요메이커의 04년 실적 및 05년 실적 전망

### ○ 미쉐린

04년에 미쉐린사는 156억 유로(210.7억 달러)의 총매출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총 매출액의 8.3%인 12억 9,9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순수익도 상승하여 5억 2,700만 유로(7억 500만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04년 미쉐린사의 실적은 간단히 말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영업이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승용차/SUV 타이어 부문인데 이 부문에서 7억 3,100만 유로를 기록했다. 트럭부문의 영업이익은 총 5억 7,800만 유로로 이 부문에서의 매출이 승용차부문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04년에는 처음으로

타이어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부문의 영업이익은 2,000만 유로를 기록했다.

동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고성능용(UHP), 겨울용, SUV용, 트럭용과 earthmover용 타이어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의 증가를 보였으며, 북미에서의 미쉐린은 미쉐린과 BFGoodrich 브랜드가 수익성 있는 사업부문에서 강세를 나타냈다는 면이 주목을 끌었고 그 외 03년 대비 매출은 전반적으로 견고했다.

미쉐린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일반타이어 부문에서의 판매는 4% 하강했고, 고성능타이어와 SUV 타이어 부문에서는 각각 13.3%와 11.3% 상승했는데 이 같은 사실로 동사가 04년에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미쉐린은 지속적인 원재료 비용의 두자리 수 상승과 전년도보다 견고하지 못한 경제상황 등 더욱더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04년의 수준과 비슷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미쉐린측은 전망했다.

### ○ 브리지스톤

04년 매출은 2조 4,167억엔(232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약 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7.9% 증가한 1,977억엔, 경상이익은 8.5% 증가한 1,816억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9.0% 증가한 1,144억엔(11억 달러)으로 매출과 이익 부문 모두 사상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 중 일본 국내시장은 8,146억엔(미국시장 1조 135억엔)으로 34%를 점유하여 해외시장 비중이 크게 높으

며, 타이어부문의 매출은 1조 9,289억엔으로 5.0%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1,602억엔으로 8.0% 증가했다.

브리지스톤 미국지사(Bridgestone Americas Holding Inc.)의 '04년 매출은 승용차용, 경트럭용 타이어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2% 증가한 91억달러를 기록하였고 순이익은 1억 8,300달러 였다. 영업이익은 266억엔으로 일본시장(1,311억엔)의 20%에 불과했는데 이는 북미시장의 적자에 기인한다.

브리지스톤에 따르면 동사의 05년도 매출은 '04년 대비 3.4% 증가한 2조 5천억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시장의 매출은 4%성장한 9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 굿이어

04년 굿이어사의 순매출은 전년대비 21% 정도가 증가한 184억달러를 기록했다. 타이어 생산수량으로는 2억 2,300개로 03년에 비해 5%가 상승했다. 매출상승 이유로는 향상된 가격, 제품다각화와 환율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환율은 유럽시장에서 약 5억 4,000만달러의 이득을 가져왔다.

굿이어사의 순이익은 03년 8억 700만달러의 손실과 대비되어 1억 1,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0억 달러를 능가하여 03년 대비 111%의 상승을 보였다. 굿이어 Keegan 사장에 따르면, 03년의 목표는 북미 타이어 사업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었고, 04년은 7개 전 사업 부문에서의 사업동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리고 05년도는 이를 바탕으로 영업실적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 컨티넨탈

04년에 컨티넨탈사는 동사의 134년 이상 역사상 가장 높은 매출과 수익을 달성했다. Phoenix사와의 통합과 환율변동 영향 이후의 컨티넨탈사의 04년 매출은 연결재무제표상으로 전년대비 9.2% 상승한 125억 9,740만 파운드를 기록했다. - Phoenix의 11월 누계 매출은 1억

6,020만 파운드였다. 영업이익은 28.2% 상승한 10억 9,640만 파운드였으며, 순이익은 114.6% 상승한 6억 7,380만 파운드를 기록했다.

05년도에 컨티넨탈사는 현재 수주 상황을 감안할 때 타이어 공장의 100% 가동을 예상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의 부정적인 잠재요소가 있지만 제품의 가격조정과 생산 확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에서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 ○ 피렐리

04년 피렐리사의 매출은 전년대비 6.6% 상승하여 71억 1,400만 유로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42% 상승한 3억 8,000만 유로였으며, 순이익은 03년 3,900만 유로에 대비하여 2억 1,700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05년에도 역시 모든 부문에서의 향상과 수익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 ○ 스미토모

스미토모사의 04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5%증가한 41억 6,000만 달러(4,706억엔)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6%가 증가한 4억 250만 달러(455억엔)로 대부분(95%)이 일본시장에서 창출 되었다. 당기순이익은 46.4% 대폭 상승한 16,950만 달러(192억엔)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수익 증가는 1,000만 달러의 손실에서 1,460만 달러의 이익의 반향을 나타낸 산업제품 부문과 03년 대비 38.5% 향상을 보인 스포츠 부문에서 주로 기인되었다. 타이어 부문 영업이익은 5.4% 상승한 2억 9,090만 달러를 기록했고, 타이어 매출은 5.2%가 증가한 31억 5,000만 달러였다. 04년간 스미토모의 투자액은 23.2%가 증가한 3억 4,310만 달러였으며, 이중 거의 3억 2,000만 달러가 타이어 부문에 소요되었다.

북미시장에서의 스미토모의 매출은 Falken Tire Corp.와 Treadways Corp.의 스미토모 타이어 부문의 매출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3.6%가 상승한 4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05년도 매출은 4.1%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 요코하마

동사의 04년 4월~05년 3월간 매출은 4,198억엔(타이어 부문은 3,079억엔)으로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였다. 그러나,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각각 0.6%, 0.8% 감소한 210억엔, 171억엔이었으며, 당기순이익은 113억엔으로 9.6%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매출비율은 전년의 28.2%에서 21.6%로 6.6%p 감소하였다.

05년에는 매출을 전년대비 6% 증가한 4,450억엔으로 예상하는 한편, 영업이익은 14.5% 증가한 240억엔, 경상이익은 5.2% 증가한 180억엔, 당기순이익은 1.6% 증가한 115억엔을 전망하고 있다.

○ 쿠파

쿠파의 04년 매출은 12.4% 상승한 20억 8,000만 달러, 순수입은 173% 크게 증가한 2억 140만 달러를 기록했다.

쿠파사에 따르면 04년 매출에서 비록 여러 부문에서의 전반적인 판매량 감소 등에 의해서 타격을 입긴 했지만 가격 상승과 상품다각화를 기반으로 플러스 성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북미시장에서의 순판매액은 11.3%가 증가한 18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영업이익은 약간 떨어져 7,600만 달러를 보였다.

Dattilo 쿠파 회장에 따르면, 04년도에 쿠파사는 신제품 출시량에 있어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동시에 시설 증설과 공장 확대를 추진했으며, 이에 대한 결실은 05년에 나타날 것이며, 05년도에는 적어도 15%의 소득이 신제품으로부터 창출될 것이며, 약 2백만개 이상의 타이어가 아시아 시장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 각타이어제조사 홈페이지 newsroom
- 미국 「Tire Business」 05. 2월 28일, 3월 28일자
- 미국 「Modern tire dealer」 05. 4월호
- 영국 「Tyres & Accessories」 4월호

05년 이후 세계 타이어 수요전망

(영국 LMC International Ltd 조사자료)

세계의 타이어수요는 2000년 이후 높은 신장세 지속하고 있다. 95년도에서 02년도까지 수요의 연평균증가율은 3.1%이었으며, 02~08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전망하여 지속적인 성장산업으로써 예측된다.

< 08년 지역별 시장규모 전망 >

(단위: 백만개, %)

구분	시장규모	시장구성비	04년 대비
구주	440.8	31.3	110
북미	408.0	29.0	108
일본	130.8	9.3	105
중국	115.9	8.2	167
아시아 (일·중 제외)	140.0	9.9	127
중남미	48.0	3.4	112
오세아니아	22.6	1.6	111
아프리카	32.2	2.3	112
기타	69.2	4.9	
합계	1,407.5	100.0	114

08년 세계 타이어시장 규모는 1,407.5백만개로써 04년 1,230.5백만개 대비 177백만개의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구주 10%(04년대비 증가율), 북미 8%, 일본 5% 등 선진국 시장은 5~10% 증가가 예상되나, 세계시장 중 선진국시장의 구성비는 04년 77%에서 08년 69%로 하락하고 중국 및 여타 아시아시장은 각각 67%, 27%의 높은 신장세가 예상된다.